

#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Factors Affecting the Family Life's Values in Seoul and Gyeonggi Area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양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가족복지전공

박사수료 김효민\*\*\*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Yang-Hee Kim

Major in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h.D Candidate: Hyo Min Kim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rther direction to the culture program at the healthy family center by analyzing its different concepts of family living culture, which is based on changes in the family values of an individual.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residents in the area of Seoul and Kung-gi from March 1, 2007 to March 30, 2007.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300 people, and 186 surveys were collected. Among those 186 surveyed, 179 were finally analyzed. Findings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age, gender, and marital status show differences in familism, consciousness of men's and women's equality, and recognition of family cultural ritual. As to planning the healthy family culture program, the program

\* 위 논문은 2006년도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김양희 (kimyhee@cau.ac.kr)

\*\*\* 교신저자: 김효민 (hyo\_mk@naver.com)

participants' age, gender, and marital status should be considered to successfully plan and operate the program. Second, regarding the view of family life from three aspects includ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family cultural ritual, familism, and the consciousness of men's and women's equality, all three variables show differences in the view of family life. Therefore, it will be highly effective to organize two separate groups: one presents lower recognition of family cultural ritual and family-based values, and another possesses a higher sense of equality. Third, the result of reviewing relative effectiveness to the proper family life value, wedding, consciousness of parents respect(=filial piety), and sacrificial rituals, funeral rites were founded to highly effective to family living view. Therefore, it will be highly effective to include these topics, when the family cultural living program is planned.

Key Words : 가족생활관(family life's values), 가족생활(family life), 건강가정 문화사업(healthy family culture progra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주요한 삶과 사고유형은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생활이 변화하였기 때문인데, 개인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본단위인 가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족의 모습은 최근 몇 년간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빠르게 바뀌면서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족의 행사였지만,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에 조사한 연구결과(김승권 외, 2003)에 의하면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또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으로 대답한 경우가 남자 19.4%와 여자 41.5%나 되었다. 더 이상 결혼은 필요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은 1998년 약 40만 건의 혼인건을 2002년 이후 약 30만 건으로 감소하게 하였으며,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85년

남자 26.4세, 여자 23.4세에서 2003년에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상승시켰다(통계청, 2003).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유형도 다양화되었는데, 이혼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였다. 한부모가구는 1975년 4.3%에서 1985년 8.9%로 증가하였고 1995년 7.4%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 8.6%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총 결혼건수의 1.2%를 차지하였는데 2005년 13.6%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5).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는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규범과 역할의식을 빠르게 변화시켰으며,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이관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가족 내의 변화와 가족과 사회의 역할의 변화에 대하여 가족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가족의 안정적 유지까지도 외부적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가족의 외부적 개입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은 방향성을 선도하고 정책적 차원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문제발생 후의 사후 처리적이며, 문제발생가정에만 국한

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점차 가족문제 발생 후의 접근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거 요보호가정지원 중심의 소극적 접근보다는 적극적인 보편적·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정책의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5년부터 개소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정생활'과 관련되어 교육·상담·문화영역으로 전문적인 사업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 문화사업은 근거법의 목적 중에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사업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자성을 갖지 못하면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사업의 그 역할과 서비스의 차별화에 대한 체계구축을 위해 현재사업분석을 면밀히 실시하고, 독자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건강가정 문화사업 개발에 앞서 문화사업의 정체성과 독자성에 대한 문제는 첫째, 가족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레이스와 그의 동료는 각각의 가족은 특정한 패러다임을 만들고, 발견하고, 구성하며, 또 그것은 가족의 고유성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패러다임은 가족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유영주, 2004 재인용). 따라서 문화사업의 기획에 우선하여야 할 것은 현재 가족구성원들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명확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둘째는 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사업의 목적인 '가정생활'과 관련된 생활프로그램의 사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문화사업은 크게 체험, 캠프, 전시·관람·시

상, 축제·각종 행사, 통합 등의 영역에서 가족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상이 가족일 뿐 내용은 가정생활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족의 통합성과 주기성 또한 반영이 미약하다.

가정생활이란 출생에서 생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겪는 성장 발전의 과정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행사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가족원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생활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가족생활문화 형성에는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가치가 개인 및 사회에 대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최연실, 1995). 가치관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김태길, 1996),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이념 내지 신념이다(정원식, 1969). 현재 한국사회에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숙명적, 자연관, 인본주의 등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주의, 평등주의, 정복 지향적 자연관, 물질주의 등의 현대적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김기연 외 2인, 2003) 상황에서, 가치관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생활관을 확립에는 여러 가치관들이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행된 가정생활관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관 연구(황인실, 1988; 김은아, 1995)를 비롯하여 대학생 혹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혼례·상례·제례와 같은 가정의례의식의 일부 내용에 국한된 연구(박순천, 1986; 이지영, 1998 이기숙, 2004)에 불과하여 가정생활관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과 운영

에 관련된 국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초기 건강가정지원센터구축 및 운영(성미애·이현아, 2004; 송혜림·장진경, 2004; 송혜림, 2005; 장진경 외 5인, 2006)과 프로그램 요구도(윤중희, 2006; 김양희 외 2인, 2006) 등이 연구되었으며, 최근 교육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분석 연구(김양희 외 2인, 2007; 정지영 외 2인, 2007)가 발표되었으나, 문화사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가정생활관에 어떤 가치관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생활과 관련한 건강가정 문화사업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 가정생활관의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에 따른 가정생활관의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인식이 가정생활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근거법과 사업내용

건강가정사업 영역 중 건강가정문화사업은

가정 단위의 공동체 운동을 지원하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문화 운동 관련 사업으로 기본법을 토대로 하여 기획되었다.

우선 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사업의 내용의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가정의 달(5월) 및 가정의 날(5월 15일) 기념행사를 계획·실행하고, 제27조에서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8조에서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봉사단 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제29조에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3조에서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법을 토대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사업의 영영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 프로그램의 많은 센터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리(쿠키, 케익, 전통음식 등)만들기, 비누 만들기, 염색, 한지 체험, 체조, 요가, 댄스, 도예, 갯벌, 숲 체험, 풍선 만들기, 사진 찍기, 전통놀이, 다도, 페이스페인팅, 엽서쓰기, 낙농, 자연, 걷기, 도시락 만들기, 핸드 프린팅, 협동화 그리기 등 매우 다양하다. 둘째, 캠프사업은 교육 및 상담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과 교육, 문화 활동을 캠프를 통해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은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가족문화 경험을 유도하고

〈표 1〉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사업유형

사업 유형	사업 설명
1. 체험사업(건강한 의식주문화사업)	요리만들기, 비누만들기, 염색, 다도, 전통놀이 등
2. 캠프사업(가족여가문화사업)	상담, 교육, 문화 사업을 캠프를 통해서 경험
3. 기념행사사업(지역사회공동체문화사업)	전시, 관람, 축제, 영화, 사진 전시, 가족축제 등
4. 다양한 문화조성 사업	소외가족과 가족봉사단 매칭결연
5. 가족친화적 사회(기업)문화 사업	직장내 사원가족 가족생활교육, 가정의 날 포상 등
6. 가족단위 자원봉사문화 조성사업	가족봉사단 관리 운영
7. 가족문화캠페인 사업	건강한 명절문화 조성, 가정의 날 홍보 등

있다. 셋째, 전시, 관람, 축제, 기념행사사업에서도 영화나 사진 전시·시상, 가족축제, 기념식 등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 가족 건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박정운, 2008). 넷째, 다양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은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과 다양한 가족과 가족봉사단간 매칭(결연)하여 소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가족친화적 사회(기업)문화 조성사업으로 가족친화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가정의 날 포상하고, 직장 내 사원가족의 가족생활교육 등을 통해 가족과 직장을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여섯째, 가족단위 자원봉사문화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다양한 가족과 연계하여 가족봉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캠페인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명절문화 조성, 합리적인 가정의례문화 조성, 가정의 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화사업의 영역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화사업의 내용이 체험 및 캠프 그리고 가족자원봉사 사업으로 치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과 더불어 현재 문화사업의 내용에서 제외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정의례문화에 대한 문화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

## 2. 가치관과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의 개념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송인자(1999)는 가족문화교육의 용어의 정의를 하였는데, 가족문화교육이란 가족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에 걸맞는 건강한 가족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가치와 규범, 가족소비와 휴식 등의 가족문화와 관련된 영역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가족문화교육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교 이외의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한 가족은 가정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게 되며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생활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이해하게 된다. 한 가족이 동계집단으로 함께 오래 살다보면 그 가족만이 지니는 고유한 생활습관, 풍습, 즉 가족만의 문화를 가지게 된다. 또 이러한 가족문화는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가족구성원에 이해 공유되며 세대간 학습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을 갖는다(송인자, 1999).

가족이 모든 생활 속에서 형성하는 가족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를 다루는데 이때 가족주의는 매우 중

시되는 한국적 특성이다. 김규원(1995)은 가족 개념의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인은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 전체의 이익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는 가족 중심적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있지만 아울러 성 평등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가치지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의 가족주의적 특성을 강조해 온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 중심적 성향과 부모공경의식이 반영된 전통적 가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은경, 1999; 김혜영, 2001). 즉 사랑과 정서적 공동체로서 가족을 개념화하고 있으며 위계적인 관계가 아닌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가족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신가족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식의 변화와 관련된 변인으로 성평등 의식 특히 교육과 성 평등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양옥경, 2001).

가족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행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례 행사는 개인적으로는 출생하여 생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겪는 성장 발전의 과정이며, 가정적으로는 개별 가정의 가정생활문화를 전달하고 가족원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생활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가정생활 전체의 방향을 유도하고 변경할 수도 있는 관련으로 가정생활관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가정생활관은 가정의 운영지침과 방향을 결정해주는 가정생활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관념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구성원 모두의 삶에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한다(정은선, 2005).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정은선(2005)의 미혼남녀의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관은 가정의례문화에 반영되기도 하고 가정의례문화는 가정 내 가족원들의 결속과 유대에 영향을 주면서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은 상호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양옥경·김혜영, 2001) 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 연구(정은선, 2005)에서는 연령과 종교, 결혼여부, 본인학력에 따라 가정생활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종교, 결혼여부, 학력에 따라 가정의례문화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정생활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가정생활문화의식 그리고 남녀평등의식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주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가정생활문화의식 및 남녀평등의식의 하위요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찾아내어 건강가정 문화사업 중 가정생활 영역의 사업내용으로 활용한다면 가정생활 영역의 문화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거주자 남녀를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가 67.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N(%)	변인	집단	N(%)
성별	남자	59(33.0)	학력	고졸 이하	115(64.2)
	여자	120(67.0)		전문대졸 이상	63(35.2)
연령	10세 이상~19세 미만	41(22.9)	결혼 여부	기혼	54(30.2)
	20세 이상~29세 미만	71(39.7)		미혼	123(68.7)
	30세 이상	67(37.4)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117(65.4)	수입	200만원 미만	38(21.2)
	무교	60(33.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9(33.0)
				300만원 이상	61(34.1)

로 남자 3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이상이 37.4%, 10대가 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졸이 25.1%, 전문대졸 8.9%, 대학원졸 이상이 1.1%로 나타났다. 종교유형을 살펴보면,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이 65.4%, 무교가 33.5%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이 68.7%, 기혼은 30.2%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정도를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이 33%였고, 마지막으로 200만원 미만~25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종합적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 연령대는 20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종교가 있고, 결혼여부는 미혼인 자이며, 300만원 이상의 가계소득을 갖는 특징을 나타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관,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 척도들을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척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각

내용에 관한 요약은 아래〈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각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수

변인	하위 변인	문항 수
가정생활관	가족관	5
	부모자녀관	5
	부부관	5
	가정경제관	5
	손님접대관	4
가정의례 문화인식	생일의례	6
	성년의례	6
	혼례	6
	상례	6
	제례	6
가족주의	가족우선성	3
	부계가문의 영속성	4
	부모공경의식	3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 유대의식	3
남녀평등의식	가족평등	20
	교육평등	20
	직업평등	20
	사회문화평등	20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결혼여부, 월수입	6

### 1) 가정생활관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관을 측정하기 위해 정은선(2005)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관 5문항(예, 가족 간에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가정의 단란한 분위기는 가족원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 부모 자녀관 5문항(예,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부부관 5문항(예, 부부는 가사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부부는 상대방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상호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경제관 5문항(예, 가정경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가정경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손님접대관 4문항(예, 손님 접대는 내 형편껏 정성을 다하면 된다)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생활관 척도의 5개 상위요인에 관한 종합적인 신뢰도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Cronbach'  $\alpha$  = .81).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5개 영역 24문항의 가정생활관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식 척도를 적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가정생활관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 가정의례문화인식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정부에서 공포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은선(2005)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의례문화인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생일의례,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의 5개 하위 영역에 걸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의례문화인식 척도를 사용한 결과, 5가지 상위요인에 관한 종합적인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6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Likert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현대적인 가정의례문화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3) 가족주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양옥경·김혜영(2001)의 선행연구의 가족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옥경·김혜영(2001)의 가족주의 척도는 옥선화(1986)의 가족주의 가치측정도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양옥경·김혜영(2001)의 가족주의 척도는 가족우선성(예, 자녀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 부계가문의 영속성(예, 장남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부모공경의식(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친정(처가)쪽 보다는 시가쪽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경제 유대의식(예,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곤란한 이웃이나 친구보다 곤란한 친척을 먼저 도와야 한다)의 총 5개의 영역에 걸쳐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0로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척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다.

### 4) 남녀평등의식

조사대상자의 남녀평등 의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개발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KGES)를 사용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구성한 척도는 가족,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4개 영역에 걸쳐 각 20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총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남녀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코딩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



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4였다.

#### 5)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앞서 선행연구(양옥경·김혜영, 2001; 정은선, 2005)에서 영향력 있는 것으로 제시된 나이, 성별, 학력, 수입, 결혼여부, 가족유형, 종교 등으로 구성하였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07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연령별 차이를 변인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게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총 300부를 배부하고 186부를 회수하여 62%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이 중 잘못 표기하였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7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사용하였고, 관련변인들에 따른 가정생활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다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이 가정생활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인식 및 가정생활관 변인들의 경향성

본 연구에 관련된 주요변인인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인식 및 가정생활관의 분포경향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가정의례문화인식은 '상례' 요인(M=4.15)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다음으로 '혼례' 요인(M=4.01), 제례(M=3.91)로 나타났다. 생일의례와 성년례의 평균은 3.48과 3.47로 가정의례문화인식 전체 평균 3.77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문화 중에서 상례와 혼례 그리고 제례에 대한 절차와 의식이 중요시하며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현대적인 문화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생일의례와 성년례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인식 수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례에 대한 문화적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가를 방문할 때는 화려한 무늬나 장식이 없는 정장을 입는다'(M=4.35)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현대사회에서도 의례에 맞는 복장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상가에 가면 예법에 맞는 조문예절로 인사를 하도록 한다'(M=4.31), '상가에서는 지나친 음주와 화투를 자제해야 한다'(M=4.2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례에 대한 문화적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M=4.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혼수에 대한 검소하고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식문화가 고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혼서지(혼인서약서)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M=4.08),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예단은 형편껏 정성을 담아 보내야 한다'(M=4.03)의 순으로 나타나 검

소하고 실용적인 현대적 혼례문화 고취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가족주의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대의식(M=2.6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요인인 가족우선성(M=2.40)과 부계가문의 영속성(M=2.40) 그리고 부모공경의식(M=2.19)의 평균이 가족주의 전체 평균인 2.44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가족을 우선하고, 부계가문의 중요성과 부모를 공경하는 가치관이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 중에서 형제자매의 유대에 대한 가치관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한 남녀평등의식에서는 교육평등의식(M=3.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평등의식(M=3.12)이 남녀평등의식의 전체 평균인 3.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평등의식(M=3.07), 사회문화평등의식(M=2.86)만이 전체 평균인 3.08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평등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산업화 이후 교육률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남녀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중요성이 현대 사회인들의 가치관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가정생활에 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가족관(M=4.20), 가정경제관(M=4.16) 요인이 가정생활관의 전체의 평균인 4.0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개의 하위요인 중 3개의 하위요인인 부부관(M=4.06), 부모자녀관(M=3.99), 손님접대관(M=3.96)은 가정생활관의 전체 평균인 4.0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응집력과 가정경제에 대해 현대적인 가정생활관을 갖고 있는 반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손님접대에 대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이 현대적 가치관보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부부중심의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높은 이혼율의 증가요인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건강가정 문화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 및 가정생활관의 경향성

변인	M (SD)	하위 변인	M (SD)
가정의례 문화인식	3.77 (.36)	생일의례	3.48 (.63)
		성년례	3.47 (.61)
		혼례	4.01 (.42)
		상례	4.15 (.47)
		제례	3.91 (.55)
가족주의	2.44 (.51)	가족우선성	2.40 (.66)
		부계가문의 영속성	2.48 (.77)
		부모공경의식	2.19 (.55)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 유대의식	2.64 (.69)
남녀평등의식	3.08 (.26)	가족평등	3.12 (.33)
		교육평등	3.29 (.38)
		직업평등	3.07 (.35)
		사회문화평등	2.86 (.27)
가정생활관	4.08 (.51)	가족관	4.20 (.39)
		부모자녀관	3.99 (.46)
		부부관	4.06 (.46)
		가정경제관	4.16 (.47)
		손님접대관	3.96 (.50)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 가정생활관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검증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의례문화인식의 차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의례문화인식은 성별과 결혼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일의례' 요인은 결혼여부 변인에서만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t=8.509, p<.05$ ), 미혼인 집단보다 기혼집단이 생일의례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생일의례들이 의미 있는 의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례' 요인은 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4.062, p<.05$ ). 남성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상례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례에 대한 의식과 절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의례문화인식의 차이

변인	집단	가정의례문화인식				
		생일의례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자	3.57(.67)	3.31(.61)	4.03(.40)	4.22(.44)	3.94(.58)
	여자	3.40(.57)	3.49(.59)	3.98(.43)	4.07(.47)	3.79(.55)
	t-값	3.010	3.290	.485	4.062*	2.668
연령	10세 이상~19세 미만	3.37(.53)	3.47(.60)	4.07(.41)	4.18(.51)	3.80(.62)
	20세 이상~29세 미만	3.57(.57)	3.38(.66)	3.91(.46)	4.05(.47)	3.79(.60)
	30세 이상	3.38(.67)	3.45(.53)	4.04(.38)	4.14(.42)	3.93(.47)
	F-값	2.177	.309	2.262	1.072	1.136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3.42(.66)	3.45(.61)	3.97(.43)	4.13(.49)	3.90(.56)
	무교	3.52(.47)	3.40(.58)	4.04(.40)	4.09(.27)	3.74(.56)
	t-값	.961	.277	.901	.233	3.158
학력	고졸 이하	3.45(.59)	3.39(.58)	4.02(.40)	4.12(.47)	3.84(.58)
	전문대졸이상	3.46(.65)	3.50(.63)	3.96(.46)	4.11(.46)	3.85(.53)
	t-값	.008	1.163	.771	.026	.018
결혼여부	기혼	3.24(.64)	3.49(.51)	4.04(.38)	4.11(.43)	3.86(.43)
	미혼	3.53(.55)	3.39(.63)	3.97(.44)	4.11(.48)	3.82(.60)
	t-값	8.509*	.915	.892	.008	.231
수입	200만원 미만	3.46(.62)	3.47(.69)	4.02(.46)	4.09(.50)	3.80(.5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52(.54)	3.44(.50)	3.93(.38)	4.05(.38)	3.82(.51)
	300만원 이상	3.39(.60)	3.39(.60)	4.01(.49)	4.15(.49)	3.83(.57)
	F-값	.796	.251	.659	.698	.051

\* $p<.05$ , \*\* $p<.01$ , \*\*\* $p<.001$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는 <표 6>와 같다. 성별과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 학력, 수입의 변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우선성’ 요인은 성별과 연령의 집단 간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t=13.561$ ,  $p<.001$ ; 연령  $F=14.435$ ,  $p<.001$ ). 성별에서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가족우선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는 10대보다는 20대와 30대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대는 10대보다 높으며, 30대 이상의 집단이 10대의 집단보다 ‘가족우선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가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계가문의 영속성’ 요인 또한 성별과 연령 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성별  $t=37.974$ ,

(표 6)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의 차이

변인	집단	가족주의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 유대의식
		M(SD)	M(SD)	M(SD)	M(SD)
성별	남자	2.65(.73)	2.95(.81)	2.34(.57)	2.90(.65)
	여자	2.29(.52)	2.27(.60)	2.16(.51)	2.52(.69)
	<i>t-값</i>	13.561***	37.974***	4.721*	11.887**
연령	10세 이상~19세 미만	1.99(.35)a<b	2.26(.60)a<b	1.86(.41)a<b,c	2.28(.64)a<b,c
	20세 이상~29세 미만	2.48(.64)b>a	2.64(.81)b>a	2.22(.50)c>b>a	2.75(.68)b>a
	30세 이상	2.60(.62)c>a	2.49(.73)	2.44(.53)c>a,b	2.76(.69)c>a
	<i>F-값</i>	14.435***	3.403*	16.476***	7.535**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2.43(.64)	2.50(.76)	2.23(.54)	2.62(.69)
	무교	2.37(.61)	2.51(.72)	2.19(.54)	2.71(.72)
	<i>t-값</i>	.306	.014	.170	.624
학력	고졸 이하	2.37(.63)	2.49(.76)	2.22(.50)	2.72(.70)
	전문대졸이상	2.54(.60)	2.50(.73)	2.25(.59)	2.75(.70)
	<i>t-값</i>	3.253	.030	2.954	1.255
결혼 여부	기혼	2.50(.57)	2.36(.63)	2.42(.49)	2.72(.63)
	미혼	2.35(.62)	2.55(.79)	2.13(.53)	2.60(.72)
	<i>t-값</i>	2.204	2.375	10.906**	1.053
수입	200만원 미만	2.49(.70)	2.42(.66)	2.21(.50)	2.68(.7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50(.60)	2.53(.80)	2.30(.49)	2.75(.62)
	300만원 이상	2.34(.60)	2.51(.77)	2.20(.57)	2.62(.65)
	<i>F-값</i>	1.077	.257	.517	.561

\* $p<.05$ , \*\* $p<.01$ , \*\*\* $p<.001$

$p<.001$ ; 연령  $F=3.403$ ,  $p<.001$ ),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는 부계가문의 영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후검증 결과 단지 10대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부계가문의 영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공경의식’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성별  $t=4.721$ ,  $p<.05$ ; 연령  $F=16.476$ ,  $p<.001$ ; 결혼여부  $t=10.906$ ,  $p<.01$ ). 여성 집단보다는 남성 집단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증 결과 1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30대 이상의 집단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보다는 기혼이 부모공경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경제 유대의식’ 요인에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위의 요인들과 비슷하게 남성 집단과 20대와 30대 이상의 집단이 10대 집단보다 형제자매와 친척 간 유대의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성별  $t=11.887$ ,  $p<.01$ ; 연령  $F=7.535$ ,  $p<.01$ ), 이러한 결과는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

변인	집단	남녀평등의식			
		가족평등	교육평등	직업평등	사회문화평등
		M(SD)	M(SD)	M(SD)	M(SD)
성별	남자	3.01(.35)	3.15(.35)	2.94(.36)	2.89(.30)
	여자	3.18(.29)	3.36(.37)	3.13(.34)	2.83(.26)
	<i>t-값</i>	9.362**	10.083**	9.710**	1.297
연령	10세 이상~19세 미만	3.24(.25)a>c	3.49(.24)a>c	3.24(.27)a>c	2.92(.26)
	20세 이상~29세 미만	3.15(.31)	3.33(.42)b>c	3.18(.29)b>c	2.87(.30)
	30세 이상	3.00(.34)c<a	3.10(.32)c<a,b	2.81(.34)c<a,b	2.79(.24)
	<i>F-값</i>	6.956**	13.904***	28.150***	2.720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3.11(.32)	3.32(.37)	3.08(.37)	2.86(.29)
	무교	3.13(.32)	3.23(.38)	3.03(.32)	2.84(.23)
	<i>t-값</i>	.093	2.032	.642	.163
학력	고졸 이하	3.14(.28)	3.27(.34)	3.08(.33)	2.85(.29)
	전문대졸이상	3.08(.34)	3.33(.44)	3.04(.40)	2.85(.24)
	<i>t-값</i>	1.197	.745	.406	.004
결혼 여부	기혼	3.03(.32)	3.11(.32)	2.85(.29)	2.79(.22)
	미혼	3.15(.32)	3.36(.37)	3.15(.33)	2.88(.29)
	<i>t-값</i>	4.145*	14.153***	25.741***	3.008
수입	200만원 미만	3.08(.30)	3.26(.35)	3.13(.30)	2.87(.3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5(.27)	3.29(.34)	3.07(.32)	2.82(.23)
	300만원 이상	3.12(.36)	3.30(.43)	3.03(.41)	2.89(.28)
	<i>F-값</i>	.497	.098	.713	.781

\* $p<.05$ , \*\* $p<.01$ , \*\*\* $p<.0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차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7>와 같다. 성별과 연령 그리고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학력, 종교, 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평등’ 요인은 성별과 연령, 결혼여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성별  $t=9.362$ ,  $p<.01$ ; 연령  $F=6.956$ ,  $p<.01$ ; 결혼여부  $t=4.145$ ,  $p<.05$ ). 남성 집단보다는 여성 집단이 가족구성원의 평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는 30대 이상의 집단과 10대 집단의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10대는 가족의 평등 점수는 30대 이상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평등보다는 권위에 따른 서열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가족의 평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육평등’ 요인은 성별, 연령 그리고 결혼여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성별  $t=10.083$ ,  $p<.01$ ; 연령  $F=13.904$ ,  $p<.001$ ; 결혼여부  $t=14.153$ ,  $p<.001$ ), 학력, 종교, 수입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과 10대와 20대 집단 그리고 미혼 집단이 교육의 평등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관의 차이

변인	집단	가정생활관				
		가족관	부모자녀관	부부관	가정경제관	손님접대관
		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자	4.18(.40)	4.10(.44)	4.10(.42)	4.18(.44)	4.03(.47)
	여자	4.21(.37)	3.95(.46)	4.06(.48)	4.15(.50)	3.94(.51)
	<i>t-값</i>	.205	3.771	.239	.146	1.109
연령	10세 이상~19세 미만	4.25(.38)	3.88(.47)	4.14(.38)	4.22(.54)	3.91(.55)
	20세 이상~29세 미만	4.20(.41)	3.97(.45)	4.08(.41)	4.14(.50)	4.00(.49)
	30세 이상	4.18(.35)	4.11(.44)	4.01(.56)	4.16(.41)	3.97(.49)
	<i>F-값</i>	.454	3.225*	.887	338	.413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4.22(.38)	4.03(.48)	4.10(.50)	4.19(.49)	3.99(.49)
	무교	4.18(.38)	3.96(.41)	4.02(.39)	4.12(.46)	3.92(.50)
	<i>t-값</i>	.236	.900	1.093	.781	.776
학력	고졸 이하	4.23(.36)	4.00(.43)	4.05(.46)	4.15(.46)	3.95(.51)
	전문대졸이상	4.15(.41)	4.01(.51)	4.12(.47)	4.19(.51)	4.00(.49)
	<i>t-값</i>	1.774	.004	.827	.314	.337
결혼여부	기혼	4.19(.33)	4.08(.42)	4.03(.41)	4.15(.41)	3.99(.43)
	미혼	4.21(.40)	3.96(.48)	4.08(.48)	4.16(.51)	3.94(.52)
	<i>t-값</i>	.078	2.021	.365	.040	.295
수입	200만원 미만	4.17(.37)	3.97(.49)	4.04(.36)	4.20(.39)	4.00(.4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20(.43)	3.98(.38)	4.08(.42)	4.17(.52)	3.90(.53)
	300만원 이상	4.26(.32)	4.04(.51)	4.07(.39)	4.14(.47)	3.99(.46)
	<i>F-값</i>	.667	.386	.121	.163	.522

\* $p<.05$ , \*\* $p<.01$ , \*\*\* $p<.001$

‘직업평등’ 요인에서도 성별, 연령, 결혼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성별  $t=9.710$ ,  $p<.01$ ; 연령  $F=28.150$ ,  $p<.001$ ; 결혼여부  $t=25.741$ ,  $p<.001$ ), ‘교육평등’ 요인과 같이 여성 집단, 30대 보다는 10대와 20대 집단이, 미혼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지막 요인인 ‘사회문화평등’ 요인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관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가정생활관의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에서만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성별, 종교, 학력, 결혼여부, 수입에서는 가정생활관과의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t=3.225$ ,  $p<.05$ ). 사후검증 결과 30세 이상의 집단이 10대 집단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나, 30대 이상의 집단이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관’, ‘부부관’, ‘가정경제관’과 ‘손님접대관’ 요인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에 따라 가족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 3.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인식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관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인식 수준에 따라 가정생활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의식 및 남녀

평등인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례문화인식과 남녀평등인식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하’집단이 모두 ‘0’으로 나타나, ‘상’집단과 ‘중’집단을 다시 세 집단으로 나누면 집단 간의 등간이 좁게 형성되어 두 집단으로만 분류하였다.

‘가족관’ 요인에는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 변인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가정의례문화인식  $t=5.884$ ,  $p<.05$ ; 가족주의  $F=8.672$ ,  $p<.001$ ),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보다 가족관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주의 의식이 중간집단과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과 가정생활관의 가족관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자녀관’ 요인은 가족주의와 남녀평등인식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가족주의  $F=9.864$ ,  $p<.001$ ; 남녀평등인식  $t=11.099$ ,  $p<.01$ ). 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모자녀관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관’ 요인에서는 가정의례문화인식이 중간인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가정경제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정의례문화인식  $t=9.166$ ,  $p<.05$ ),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이 가정경제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주의  $F=4.870$ ,  $p<.01$ ).

‘손님접대관’ 요인에서는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남녀평등인식  $t=4.398$ ,  $p<.05$ ).

그러나 ‘부부관’ 요인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높고, 가정의례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정생활관의 가족관, 부모자녀관, 가정경제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주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 평

**<표 9>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인식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관**

변인	집단	가정생활관				
		가족관	부모자녀관	부부관	가정경제관	손님접대관
		M(SD)	M(SD)	M(SD)	M(SD)	M(SD)
가정의례 문화인식	상	4.22(.37)	4.03(.45)	4.08(.48)	4.21(.45)	4.00(.11)
	하	3.91(.52)	3.75(.53)	3.91(.28)	3.73(.63)	3.72(.47)
	<i>t-값</i>	5.884*	3.191	1.165	9.166*	2.572
가족주의	상	4.58(.43)a>b, c	4.53(.27)a>b, c	4.25(.56)	4.56(.46)	4.31(.74)
	중	4.18(.36)b<a	3.96(.42)b<a	4.05(.47)	4.12(.46)	3.94(.46)
	하	3.86(.43)c<a	3.76(.95)c<a	4.06(.27)	4.20(.57)	3.95(.74)
	<i>F-값</i>	8.672***	9.864***	.915	4.870**	2.930
남녀 평등인식	상	4.21(.38)	3.79(.49)	4.12(.34)	4.25(.55)	3.83(.49)
	하	4.20(.37)	4.09(.43)	4.05(.41)	4.15(.44)	4.03(.48)
	<i>t-값</i>	.017	11.099**	.796	.973	4.398*

\*p<.05, \*\*p<.01, \*\*\*<.001

등의식은 낮은 집단에서 가족주의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가족주의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 양옥경·김혜영(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 4.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앞서 제시한 집단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적 변인들이 정말로 가족주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제 변인이 갖는 설명력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양옥경·김혜영(2001)의 연구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족주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력과 성 평등의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은선(2005)의 미혼남녀의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관은 가정의례문화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집단 간 차이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들이 정말로 가정생활관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제 변인이 갖는 설명력

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 및 남녀평등인식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정도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각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서는 1.90로 자귀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의 VIF 값은 최고 1.0으로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VIF값이 4.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한다(Belsky, Kuh, & Welsch, 1980).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 그리고 남녀평등인식의 하위변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더미화하여 가정생활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혼례는 20.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이 나타났다. 여기에 부모공경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7.9%가



(표 10)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정의레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과 가정생활관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041																			
2. 성별	-.837**	-.194**																		
3. 결혼여부	.042	-.140	.003																	
4. 종교	.181*	-.053	-.137	-.051																
5. 학력																				
가정의레문화인식 변인																				
6. 생일의례	-.114	-.137	.210**	.121	-.005															
7. 성년례	.044	.133	-.086	-.022	.053	.388**														
8. 혼례	.034	-.035	-.077	.058	-.088	.152*	.388**													
9. 상례	-.047	-.149*	-.001	.011	-.042	.251**	.256**	.560**												
10. 제례	.080	-.110	-.051	-.075	-.008	.363**	.397**	.277**	.450**											
가족주의 변인																				
11. 가족우선성	.283**	-.253**	-.128	.062	.123	.222**	.141	.073	.075	.197**										
12. 부계가문의 영속성	-.002	-.420**	.104	.093	.011	.221**	-.001	-.056	.102	.126	-.534**									
13. 부모공경의식	.337**	-.169*	-.232**	.081	.136	.260**	.034	-.001	.003	.083	-.500**	.501**								
14. 형제자매 유대의식	.246**	-.232**	-.108	.188*	.068	.244**	.085	.030	.039	.125	-.469**	-.400**	.511**							
남녀평등의식 변인																				
15. 가족평등	-.218**	.266**	.159*	-.033	-.088	-.241**	-.131	-.003	-.160*	-.172*	.377**	-.398**	-.106**	-.377**						
16. 교육평등	-.438**	.263**	.310**	-.206**	.080	-.076	.010	-.062	-.092	-.122	-.449**	-.415**	-.475**	-.463**	.607**					
17. 직업평등	-.419**	.229**	.341**	-.137	-.040	-.068	-.025	-.068	-.123	-.138	-.342**	-.286**	-.401**	-.326**	.583**	.704**				
18. 사회문화평등	-.157*	-.074	.126	-.062	.037	-.238**	-.260**	-.133	-.102	-.164*	-.212**	-.075**	-.169**	-.186**	.386**	.373**	.439**			
가정생활관 변인																				
19. 가정생활관	-.006	-.080	-.022	-.062	.025	.333**	.324**	.414**	.443**	.365**	.267*	.197*	.290*	.195*	-.160*	.012	-.163*	-.221**		
M	2.48	1.67	1.69	2.39	1.35	3.45	3.42	3.99	4.11	3.84	2.41	2.50	2.22	2.65	3.12	3.29	3.07	2.86	4.08	
SD	1.27	.47	.46	1.32	.47	.61	.60	.42	.47	.56	.62	.75	.53	.70	.33	.38	.35	.27	.32	

\*p<.05, \*\*p<.01, \*\*\*p<.001

〈표 11〉 가정생활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 변인	가정생활관					
	$\beta$	t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Delta R^2$	F
혼례	.45	5.935***	.34	.32	.207	17.559***
부모공경	.28	3.847***			.079	
제례	.21	2.841**			.041	
상례	.18	2.043*			.021	

\*p<.05, \*\*p<.01, \*\*\*<.001

증가하여 28.6%의 설명력을 가지며, 제례가 추가되어 4.1%가 증가한 32.7%를 설명하였다. 상례가 추가되면 2.1%가 증가하여 34.7%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가정생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혼례( $\beta=.45$   $p<0.001$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공경( $\beta=.28$ ,  $p<0.001$ ), 제례( $\beta=.21$ ,  $p<0.01$ ), 상례( $\beta=.18$ ,  $p<0.05$ )의 순으로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례와 제례, 상례에 대해 현대적인 의례문화인식을 가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의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정생활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례와 제례 및 상례 등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써 현대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지켜져야 할 의식과 절차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의식 또한 건강한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관계가 현대 가족 내의 가정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정의례문화인식,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가정

생활을 주제로 한 문화사업의 주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과 성별 그리고 결혼여부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변수에 따라 남녀평등의식과 가정의례문화인식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가정 문화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문화사업의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결혼 여부를 고려하여 기획·운영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은 계층간의 구분을 두지 않고 기획·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운영 시에 연령, 성별, 결혼여부 혼합 시에는 세대 간 의식차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에서는 남자와 연령이 특성에서는 연령이 낮은 10대들의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남녀평등의식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들 집단에겐 평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 그리고

남녀평등의식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관을 살펴본 결과, 세 변인 모두 가정생활관과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 변인은 두 변인의 의식이 높은 집단이 가정생활관도 높게 나타났지만, 남녀평등의식 변인은 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이 가정생활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정의례문화인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과 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을 구분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대적인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정생활관에 혼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는 가정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혼례의 의식과 절차를 바르게 알고 행사에 임하는 것이 현대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화사업으로 혼례에 대한 의미를 교육하고 혼례 절차와 예절에 관한 문화사업이 필요하다. 20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초기 사업에는 혼례에 관한 문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부활 또는 발전시킨 사업이 기획·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공경의식이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건강가정문화사업으로 부모공경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부모공경과 효의식과 관련된 학생문화교육 및 캠페인 등의 실천은 가정생활관 정착과 세대 간 연대의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인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요인은 제례와 상례로 나타났다. 관혼상제례 중 혼례와 제례 그리고 상례는 가정생활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례로 밝혀졌지만, 성년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의 성년에 대한 의미가 정

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례의 경우 현대에는 상례 절차 또한 가정을 벗어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조문 등으로 본인 가정 외에 다른 가정의 상례 절차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있으나 실제로 상례에 대한 의식과 절차 및 예절교육을 학교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인들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례에 관한 문화프로그램이 기획되면 현대가 지양하는 현대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체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한정된 변인들에 따른 가정생활문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된다면 더 풍부한 결과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대 빈도분석 결과, 30대 이상의 조사대상 표본의 수가 적게 나타났다. 설문문항이 많고, 설문지 회수 시 우편으로 받는 과정에서 30대 이상의 적극적인 회신의욕이 낮아 30대 이상의 조사대상 표본의 수가 적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편 설문지 회수율은 50%를 밑도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는 50%를 상회함에도 30대 이상의 조사대상 표본이 적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이 수집되도록 대인 면접법 등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대적인 건강가정 문화사업의 기초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창의력과 함께 인격이 잘 발달된 인간을 키우고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고 세대 간 남녀간 차별이 없는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적 의사소통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을

제기한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사업에는 추석명적 송편 만들기 등의 일회기성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의식변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건강가정 문화사업 중 가정생활 문화사업의 주제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 논집 7, 213-255.
- 2) 김기연, 신수진, 최혜경(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 3) 김승권(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수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김양희, 정경아(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5) 김양희, 한은주, 방한별(2006). 지역사회 내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성과: 서울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과학논집 23, 89-101.
- 6) 김양희, 한은주, 방한별(2007). 지역 내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사업 실천과 실용성: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과학논집 25, 41-51.
- 7) 김은아(1995). 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지향하는 가정생활관에 대한 여고생의 의식조사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태길(1996). 한국윤리의 재정립. 서울: 철학과 현실사.
- 9) 김혜영(2001). 한국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성별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12(1), 79-106.
- 10) 박순천(1986).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사행례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거주주부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박정윤(200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문화 사업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25-36.
- 12) 성미애, 이현아(2004). 건강가정사의 역할, 자격 및 양성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45-355.
- 13) 송인자(1999). 개화기 여성교육론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송혜림, 장진경 (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03-318.
- 15) 송혜림(200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모형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17-39.
- 16)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97-198.
- 17) 양옥경, 김혜영(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2), 29-55.
- 18) 옥선화(1986). 가족주의 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143-153.
- 19) 유영주(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 20) 윤중희(2006). 건강가정 서비스에서 가족중심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통합장애아 가족의 능력강화를 위한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4), 191-205.
- 21) 이기숙(2004). 가족의례: 한국인의 죽음의례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 175-208.
- 22)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23) 이지영(1998). 전통사회 혼인에 관한 대학

- 생의 의식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장진경, 오제은, 한은주, 류진아, 원소연 (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의 역할인식 조사연구: 중앙, 광역(시·도), 시·군·구 센터를 구분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4(10), 21-34
- 25) 정원식(1969). 정의의 교육. 서울: 배영사.
- 26) 정은선(2005). 미혼남녀의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 연구.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정지영, 정영금, 조성은(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93-114.
- 28) 최연실(1995).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9) 통계청. www.nso.go.kr. 2003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
- 30) 통계청. www.nso.go.kr. 2005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
- 31) 황인실(1988).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Belsley, D. A., Kuh E., & Welsch, R. E. (1980). *Regression Diagnostics: Identification Influential Data and Sources of Collinear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투 고 일 : 2009년 1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1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3월 29일